AI 시대, 인권의 자리를 다시 묻다

김다현

과제 마감 전날 밤 나는 습관처럼 CHAT GPT를 연다. 개요가 막힐 때, 문장이 어색할 때, 심지어 여러 가지 고민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가장 먼저, 또 가장 쉽게 말을 거는 상대가 AI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AI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도록 도와주는 도구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이자 고민 상담의 상대가 되었다. 그러다 문득 이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는 AI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고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권리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을까?

이 물음은 내가 매일 지나는 학교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 교수님들은 과제를 할 때 AI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 친구들 대부분이 AI를 쓰고 또 AI의 도움을 받은 결과물이 확실히 더 좋아 보이기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성실하게 스스로 해낸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부정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받을 권리의 문제이다. 더욱이 불안한 것은 나 스스로이다. 무언가에 부딪힐 때마다 AI에게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다보니, 이전과 달리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AI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생활 침해이다. AI와의 대화는 어느새 정보 검색을 넘어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왔다. 편리함의 대가로 가장 내밀한 이야기의 통제권을 넘기고 있다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또한 이미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사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얼굴, 목소리, 위치 정보 같은 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딥페이크는 이런 데이터를 악용하여 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도용하고 명예와 일상을 무너뜨리는 폭력이 되었으며, 피해자가 우리의 또래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AI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AI는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 안에 스며있는 편견까지도 그대로 배운다. 과거 채용 기록을 학습한 AI가 여성 지원자를 낮게 평가해 폐기된 사례, 얼굴 인식 기술의 정확도가 피부색과 성별에 따라 크게 달랐던 연구 결과, 그리고 2021년 소수자 혐오 표현 논란으로 서비스를 멈춘 챗봇 '이루다'까지 이들은 모두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객관적인 기술의 모습을 띄고 있어 알아채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AI가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물어도 명확한 답을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막혀 버린다.

그리고 현재, 가장 무거운 문제는 전쟁터에 있다. 비록 내가 직접 마주한 일은 아니지만,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공격까지 행하는 자율무기 시스템은 이미 현실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AI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워야 하는 가도 이에 따라오는 문제이다. 책임질 사람이 불분명한 채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알고리즘

의 판단에 맡겨진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선 인간 존엄의 문제다. 기계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 그 죽음에 대해 누구도 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이 나를 가장 두렵게 했다.

그렇다고 AI의 그림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AI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AI가 인권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접근성의 측면이다. 시각장애인에게 AI는 주변의 사물과 글자를 읽어주는 눈이 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대화를 실시간 자막으로 바꿔 주는 귀가 될 수 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던 이주민과 난민은 번역 기술 덕분에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싼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AI는 언제 어디서나 질문할 수 있는 전담 선생님이 되어 배움의 격차를 줄여 주고 있다. 나 역시 이해되지 않는 개념을 몇 번이고 편하게 다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AI의 덕을 봤다. 또한 위성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인권 침해 현장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는 데에도 AI가 쓰이고 있다. 기술이 더 많은 사람에게 존엄하게 살아갈 기회를 넓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AI는 인권의 든든한 조력자로 역할하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기에 이미 우리는 너무 멀리 왔고, 그 혜택이 절실한 사람도 너무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편향을 점검하고 AI의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대화와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삭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판단만큼은 반드시 사람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AI의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함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규칙을 지키는 학생이 손해를 보지 않고 AI를 쓰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부터 AI에게 무엇을 털어놓는지 한 번 더 돌아보고, 편리함 앞에서 잠시 멈춰 이 기술이 나의 권리를 지키고 있는지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진다 하더라도 무엇이 옳은지 묻고 방향을 정하는 일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의 몫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차가운 알고리즘 위에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온기를 얹는 것,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일 것이다.